

한국전력·도로공사 돌풍 '투자의 힘'

김중건 전문기자의 V리그 레이다

남 한국전력 3년 만에 포스트시즌 눈앞
구단주 경기장 방문 등 관심·지원 늘어

女 도로공사 역대 최대 9연승 선두 질주
자녀 놀이방 등 선수지원 시스템 좋아져



이번 시즌 V리그를 한 마디로 정리하면 두 '공사' 팀의 반란으로 요약될 것 같다.

여자부 6개 팀 가운데 유일하게 우승이 없던 도로공사가 4라운드부터 1위다. 지금 추세라면 챔피언 직행도 가능하다. 9연승으로 팀 역대 최대연승 신기록도 세웠다. 남자부 한국전력도 2011~2012시즌 이후 3년 만에 포스트시즌 진출이 보인다. 첫 전구단 상대 승리, 팀 최대연승 신기록 행진도 했다. 신영철 감독도 봄을 기대한다. 남녀 공사 팀이 봄 배구에 진출했던 것은 2011~2012시즌이 유일했다. 도로공사가 2위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했고 한국전력은 4위로 준플레이오프에 나갔다. 두 공사의 이번 시즌 돌풍은 구단주의 열정과 투자, 전문 프런트의 역할, 현장 중심의 운영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수원의 배구바람-진정한 프로화의 시작

지난 4일 한국전력이 우리카드를 꺾고 6연승을 달린 날 수원실내체육관에는 조현의 구단주가 자리를 지켰다. 구단주는 나주 본사에서 올라왔다. 구단주가 경기장에 온다고 선수들의 경기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주위 사람들이 받는 느낌은 다르다. 사장이 배구에 열정을 가졌다는 것이 중요하다. 주변 인사들도 명달아 애정 어린 눈으로 배구에 관심을 갖게 된다. 사장의 관심이 커지면서 지원도 풍족해졌다. 구단은 그 내용을 밝히지 않지만 "다른 팀과 견줘 결코 섭섭하지 않다"고 했다.

매일 2만 명의 직원이 본다는 한국전력 사내방송은 요즘 배구 경기가 있는 날 오전 경기안내 방송이 나간다. 4일에는 "오늘 우리 배구팀이 6연승에 도전한다.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나주는 물론 각 지역에 퍼져있는 직원들에게 자발적인 경기장 관람을 유도하는데 효과 있다. 강제로 동원하지 않아도 요즘 수원 경기장은 관중이 눈에 띄게 늘었다. 이번 시즌에만 4차례 5000명에 가까운 관중이 경기장을 메웠다. 그 열기에 힘입어 지정좌석제도 도입했다. 그동안은 오직 승패에만 관심을 가졌지



한국전력 전광인(왼쪽)이 9일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V리그 남자부 5라운드 경기에서 LG손해보험의 2인 블로커를 앞에 두고 강 스파이크를 날리고 있다. 수원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트위터@bluemarine007

만 이제는 관중도 신경 쓸 정도로 시야가 넓어졌다. 이는 진정한 프로배구단으로 가는 첫 발걸음이다.

공교롭게도 배구감독 출신의 공정배 단장이 오고 나서는 지지 않았다. 의사결정 과정도 많이 단축됐다고 한다.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배구전담 단장이다. "프런트는 선수단을 돕는 조력자고 현장이 중심"이라고 믿는 공 단장의 생각과 전문적인 판단은 팀의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다.

●투자와 배려가 만든 1위...세상에 공짜는 없다

시즌을 앞두고 도로공사는 과감한 투자를 했다. 2명의 FA선수 이희희 정대영을 영입했다. 그동안 어느 팀도 그렇게 용감하지 않았다. 시즌 초반 투자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성공된 투자였다는 것이 입증됐다. 프로스포츠에서 투자 없는 결과는 요행이나 행운일 뿐이다. 배구 꿈나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선수의 부가가치는 갈수록 커진다.

도로공사는 이런 면에서 미래를 잘 봤고 좋은 선택도 남겼다. 몇 년 전만해도 다른 팀에서 도로공사 선수를 데려가려고 하면 그

기업에 압력을 넣을 생각부터 했던 도로공사였다. 격제지감을 느끼게 한다. 갑의 마인드를 벗어나면서 진정한 프로팀이 됐다.

도로공사는 GS칼텍스와 함께 전임단장 체제도 도입했다. 전문성도 생각한다. 선수 지원 시스템도 정교하게 만들었다. 선수들의 기량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그에 합당한 보상도 해준다. "다른 팀과 비교해도 앞선다"고 실무자는 말했다.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선수들에게 하나라도 더 해준다는 자신감이 중요하다.

투자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배려도 있다. 서남원 감독은 베테랑을 위해 감성적 배려를 선택했다. 경험을 존중하고 가치를 인정해준다. 장소연 정대영 등 워킹맘에게는 숙소 생활 대신 집에서 출퇴근도 시킨다.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을 많아지자 베테랑은 더 좋은 플레이로 보답했다. 취학 전인 정대영의 딸을 위해 직원용 놀이방 시설도 개방했다. 정대영은 훈련 때 아이를 회사 보육시설에 맡겨두고 마음 편히 운동한 뒤 함께 집으로 돌아간다. 모든 엄마가 꿈꾸는 삶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과감한 투자와 전문성, 배려가 도로공사의 힘이다.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중요한 사항들

오는 13일 다음 시즌 V리그의 중요한 변수가 될 사항을 결정할 이사회가 열린다. ▲여자부 외국인선수 트라이아웃 ▲우리카드의 미래관련 ▲남자부 중립경기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진다. 허투루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다.

다음 시즌 여자부 외국인선수 트라이아웃이 실시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이사회는 관련 규정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만들 마지막 기회다. 우리카드 처리문제도 그렇다. 팀을 없애기는 쉬워도 새로 만들기는 어렵다. 미래가 없는 우리카드는 최근 대체 외국인선수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아쉬움이 많았다. 다비드보다 더 좋은 선수가 오겠다고 했지만 이 선수는 다음 시즌을 보장해달라고 했다. 우리카드 어느 누구도 그 다음을 약속할 수 없었다. 힘 빠진 우리카드 선수들에게는 약속된 미래와 희망이 필요하다. 장충체육관 중립경기도 결국 우리카드 존속과 관련된 문제다. 부디 이사회가 자기 팀과 눈앞의 이익만 보지 말고 V리그 미래를 보는 눈을 가져줬으면 한다.

marco@donga.com 트위터@kimjongkeon



쇼트트랙 여자 심석희(가운데)가 김기몸살로 출전을 포기했던 4차 대회를 털고 5차대회에서 주종목인 1500m에서 1위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금메달을 들고 활짝 웃었다. 김아람(왼쪽)은 은메달을 차지했다. 드레스덴(독일) | AP통신사

이상화, 하루만에 부활 레이스

여자 500m 1차 레이스 5위 부진 털고 2차 2위
심석희도 여자 1500m 2차 레이스 결승전 1위

'빙속여제'들이 제자리를 되찾았다. 스피드스케이팅 간판스타 이상화(26·서울시청)와 여자쇼트트랙의 에이스 심석희(18·세화여고)가 시상대에 복귀했다. 이상화는 8일(한국시간) 네덜란드 헤이렌베인에서 열린 2014-2015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6차대회 여자 500m 디비전A 2차 레이스에서 38초21로 2위에 올랐다. 1차 레이스에서 38초29로 5위에 그치며 3년 2개월 만에 메달권에 들지 못해 의문을 자아냈다. 30경기 연속 메달 획득에도 실패했다. 대한빙상연맹 측은 "김기몸살로 인해 컨디션이 좋지 않았고 고질적인 오른 무릎 통증으로 인한 것 같다"고 설명했으나 "이상화의 경우 2차 레이스를 지켜봐야한다"고 했다. 이상화는 비단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인 스피드스케이터이기 때문이었다. 명불허전이었다. 이상화는 단 하루 만에 다시 시상대에 올랐다. 1위를 탈환한 건 아니지만 은메달을 목에 걸며 자존심을 지켰다. 38초19로 결승선을 통과한 1위 유디트 헤세(독일)와도 0.02초 차이였다.

모태범(25·대한항공)도 남자 500m 디비전A에서 34초94만에 결승선을 통과해 파벨 쿨리즈니코프(러시아·34초62)에 이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2차대회 이후 시상대에 올랐고, 이번 시즌 처음으로 34초대의 기록을 세웠다.

부진했던 심석희도 3개월 만에 정상 자리를 되찾았다. 그는 9일 독일 드레스덴에서 열린 2014-2015 ISU 쇼트트랙 월드컵 5차대회 여자 1500m 2차 레이스 결승전에서 1위로 통과했다.

한국 여자쇼트트랙 대표팀의 대들보인 심석희는 이번 시즌 2차대회까지 12개 대회 연속 금메달 행진을 벌였으나 이후 컨디션 저하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 3차대회에서 2개의 은메달에 그쳤고, 4차대회에서는 김기몸살로 인해 출전을 포기하기도 했다.

다행히 4차대회 이후 휴식이기가 주어졌다. 지친 몸을 회복한 심석희는 5차대회에서 주종목인 1500m에서 우승을 거머쥐었다. 결과뿐 아니다. 그는 이날 최상의 몸 상태를 보였다. 7바퀴를 남겨두고 아웃코스에서 빠르게 빠져나가 선두를 차지했고, 2위로 올라선 김아람과 함께 다른 선수들을 견제하면서 스케이팅을 펼쳤다. 선두로 올라선 뒤에도 특유의 지구력으로 레이스 끝까지 힘이 떨어지지 않는 모습이었다. 결승선을 앞두고 직선주로서 김아람이 스피드를 올렸지만 심석희가 간발의 차로 먼저 들어오며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 남녀쇼트트랙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만 금메달 4개와 은메달 4개, 동메달 1개를 차지했다.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트위터@hong927

편집 |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트위터@sadzoo

말로 하지 않겠다!

몸에 좋다는 말...
남자에게 좋다는 말...
백 마디 말보다
확실한 것은
한 번의 체험입니다.
직접 경험해보고
판단하십시오.

하루 아침에
내 몸의 변화를 확인하고 싶다면,
1577-8619
전화주시면 무료체험분을 드립니다.

